

출판계에 자리잡는 '여성파워'

70년대 이후 급증...출판다양화로 '섬세한 감각' 요구

발행인·편집자급만도 100여명

출판계에 여성진출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대개의 출판사 편집부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출판사를 제외한 문학·예술·아동도서 출판사의 경우는 편집장급의 절대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발행인을 포함한 여성 편집자급들은 100여명(출협 회원출판사 기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출판사의 대표로 등록돼 있는 여성들 가운데는 명목만의 발행인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편집에 직접 관여하는 여성 발행인들은 그 역할에 있어 남성과 구별지를 수 없으며, 편집장급 또한 편집을 총지휘하는 점에서 굳이 '여성'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어색할 정도. 이들은 대략 10년 이상의 출판경력을 갖고 있으며, 일을 즐기는 전문여성들이다.

여성의 출판계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시기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후반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26년간을 출판계에 종사해온 尹淑씨(햇빛출판사 대표)의 말대로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다.

"우선 취직하기가 쉬웠어요. 당시 개별 그룹들이 남성인력을 많이 요구해서 남성인력이 그곳으로 집중되었고, 출판사에 근무하던 남자들도 출판사일이 답답하다며 잡지사, 신문사로 대거 이직을 했지요. 따라서 각 출판사들은 여성인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난 것 아닐까요? 요즘도 남자 편집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이유로 70년대부터 출판계에 여성들이 많이 자리잡게 되었고, 그 이후 입사한 편집부원들이 지금은 경력 10~20년의 베테랑이 되어 '출판계의 여성 파워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은 여성에게 더욱 유리한 직종

남성들이 출판사를 기피한 까닭은 우선 '답답하다'는 지적대로 편집이 갖고 있는 성격 탓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획에서 편집에 이르는 출판사 작업 자체가 여성에게 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성편집인들의 말이다.

"섬세함, 날카로운 감각, 침착함, 심미안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밖에 편집기술, 교정, 장정, 인쇄 등 출판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세밀함, 꼼꼼함, 인내가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출판의 성격을 '여성적'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전문직이면서도 기능적인 출판은 辛江南씨(금성출판사 편집부장)의 말과 같이 굳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필경 여성의 특성에 더욱 적합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상한 마음 씀씀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도서의 경우는 여성이 유아용어나 아동의 발달단계, 아동심리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편집장이 여성인 경우가 많다고 유인화씨(예림당 편집부장)는 설명하고 있다. 또

여성들이 출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섬세하고 치밀한 감각을 요구하는

출판의 속성 이외에도,

출판사가 다른 직종과는 달리

비교적 남녀평등이 보장되고

철저히 능력이 존중되는 일터라는

매력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편집인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自省의 소리도 있다.

한 한편의 책을 만드는 과정은 오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정적인 여성에게는 더욱 어울리는 직종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출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출판의 속성 이외에도 출판사가 다른 직종과는 달리 남녀차별을 거의 볼 수 없는, 철저히 능력이 존중되는 일터라는 매력 때문이다. 그래서 출판계는 林恩珠씨(김영사 편집장)의 말대로 의욕, 야심, 열정을 갖고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볼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풍토 자체가 직업여성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도 출판계의 경우, 눈에 보이는 남녀의 차별이 덜하다는 것을 여성출판인들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을 중시하는 출판계에서는 여성이 직업의식을 갖고 성실히 일을 한다면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력8년의 金錦姬씨(열화당 편집부장)도 전혀 제약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결혼 전보다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말한다. 만약 기혼여성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편집이 여성에게 더욱 알맞은 전문직이어서, 여성진출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사진은 '한국편집아카데미'에서 편집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

사회의 편견, 발행인의 편견 또는 여성 자신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나 출판계가 비교적 평등하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임금 격차와 승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 출판사의 경우, 기혼퇴직제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임신을 한 직원이 주위의 눈총과 야근이 계속되는 힘든 업무량 때문에 스스로 직업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상 올해부터 편집자울권이 주어졌다는 범우사의 李玉男씨(편집제작국 과장)는 아직도 여성들이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산재해 있음을 밝힌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여성은 두 배 이상의 두각을 나타내야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네 사회통념이 남자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큰 출판사의 경우는 여성부장급들이 남성과 기획선정작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직급에 따른 대우에 있어 차별이 없지만, 영세출판사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러한 차별은 비단 출판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후배들을 위해 자기희생을 서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인 것이다.

베스트셀러 나올 때 가장 보람 느껴

여성편집인의 수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출판계에서 편집부장급의 이른바 '간부'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적은 것은 위와 같은 사회의 편견과 함께 여성 자신의 문제도 크다. 이것은 넓은 인식의 폭과 투철한 역사·사회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 사회과학 출판계에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시대정신을 꿰뚫는 통찰력과 창의력을 가진 여성이 드문 것 같다는 것이 崔沃子씨(일월서각 대표)의 말이다.

그밖에 여성들의 안이한 자세 또한 고쳐져야 한다고 경험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일에 대한 경력은 곧 일에 대한 숙달을 뜻하므로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사원들을 총괄할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된다. 때문에 무엇보다 출판 전반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로 자기개발에 힘써야 한다. 좋은 기획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어진 업무를 국소적으로 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기획을 하면서 영업까지 생각하고, 교정을 보면서 편집까지 생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朴恩珠씨는 덧붙인다. 출판도 경영인만큼 영업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출판사의 발행인 또는 직원으로서 출판인들은 자신들이 기획, 출판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독자들의 반응이 좋게 나타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다.

여성 스스로의 자기개발 노력 필요

편집에는 개성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출판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작업이고 상품생산인만큼, 그 위에 판매 성공까지 덧붙여진다면 편집인은 자기성취감과 함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 출판인들은 문화에 공헌하는 사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부단한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출판계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여성진출의 문도 계속 넓어질 것이다. 또한 다년간 숙달된 전문여성 편집인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여성편집인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출판계의 추세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내외의 출판동향을 민첩하게 파악, 대처하는 전문출판인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직무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옥경기자